

“청년주택 덕 나주에 등지… 결혼보다 내 삶이 우선”

나는 왜 **SOLO** 가 되었나

〈중〉 지역에서 솔로로 살아남는 법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돼 전입
관리비만 납부…목포 출퇴근 생활 청산
주거 비용·유류비 절감 가장 큰 만족
청년도약계좌 적금 등 자산관리 도움
“결혼 필수는 아냐…딩크족에도 동의”

지난 24일 오후 찾은 나주시 송월동 부영주택 2단지 일
대는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는 중·장년 입주자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전승균(30)씨의
보증금자리에 들어서자 한적한 동네 모습과는 달리 감각적
인 실내 분위기가 펼쳐졌다.

20평(전용면적 49㎡) 남짓한 공간에는 아늑한 침실과
옷방, 대형 오락과 사운드바, 소파가 설치된 거실이 자리
잡았다. 집주인의 취향에 맞춰 나무 무늬와 진회색으로
통일감을 줬다.

전씨는 나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서 지난
해 말 나주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주시민으로 살아온 지
너 달이 됐다.

간호사인 그는 지난해 7월부터 나주시 산포면의 한 의
료기관에 취업해 전남도민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있다. 나
주로 집을 옮기기 전까지는 본가인 목포에서 매일 왕복 2
시간에 달하는 거리를 출퇴근해왔다.

나주에 집을 얻어볼 생각이었지만 한 달 3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었다.

그러던 차에 나주시가 내놓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 공
고가 눈에 띄었다. ‘전·월세 0원’ ‘보증금 0원’에 최장 4년
(2년 단위 계약)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준다는 내
용이었다.

전씨는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 임대주택의 입주
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주
택에는 68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나주시는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18~45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인구 감소와 지역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마련했다.

송월동 부영주택 2단지 20평 아파트 보증금 5000만원
과 상영동 1단지(20평) 보증금 4000만원은 나주시가 부
담한다.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나주시가 들인 예산은 지
난해 15억원, 올해 35억원가량이다. 협약을 맺은 부영주
택은 오래된 벽지와 장판, 보일러 등을 교체했다. 입주 청
년 부담하는 비용은 가스·수도요금과 관리비 등 월 15
만원 안팎이다.

전씨는 보증금에 드는 비용 300만~400만원을 ‘첫 아파
트 생활’을 멋들어지게 시작하는 데 썼다. 영화와 커피를
좋아하는 그는 맞춤형 가전을 마련하며 집에서 모든 취미
생활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전씨가 청년 주택에 새 등지를 틀면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 단축’과 ‘주거 비용 절감’이다.

왕복 2시간이었던 출퇴근 시간은 30분 정도로 줄었다.
매달 절약하는 10만원의 주유 비용도 쏟을새다. 보증금과
월세에서 절약한 돈은 청년도약계좌 등에 넣으면서 목돈
마련에 쓰고 있다. 무조건 확실한 걸 좋아하는 그는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
금을 보는 자산관리 방법을 택했다.

매달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나주 주거정책에 청년들
은 호응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한 주택 30호 중 2가구는 신혼부부, 3가구
는 가족·친구 등과 공동 거주하는 형태로 입주했다. 10~
2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명, 40대 2명이 뒤
를 이었다. 광주 20명, 전남(나주 제외) 8명, 경기 1명,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전승균(30)씨가 송월동에 마련한 20평(전용면적 49㎡) 보증금자리에 응접실을 상영관으
로 꾸며 인터넷 TV 서비스(OTT)를 즐기고 있다.

부산 1명, 전북 2명이 나주시민이 됐다.

전씨는 “직장 동료와 또래 친구들도 나주 청년 주택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지인들은 직장도 가까운 곳에서 출
퇴근하는 점을 가장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나주 원도심의 쇠퇴한 상권은 전씨가 불편을 느끼는 부
분 중 하나다. 인천과 목포에서 살던 때와 달리 배달 품목
의 폭이 훨씬 좁아졌다. 다행히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하는 배송이 가능해 숨통이 트였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받는 그는
올해가 중요한 시기이다. 이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여유
가 부족하다고 한다. 때때로 시간이 나면 나주 혁신도시
와 본가가 있는 목포에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한다.

“10년 뒤의 삶”을 그려보길 주문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장 4년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먼 미래
를 바라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고한 비혼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혼이 인생에

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딩크(DINK)’쪽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어야 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주에 직장이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나주시는 지난해 30호에 이어 올해 70호 ‘청년 임대주
택’ 입주자를 받는다. 지난 1일 공고를 낸 뒤 26일까지 신
정자를 모집한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른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45세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
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에 있는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
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
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입단지 근
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 달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6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주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결혼 비용 3억474만원… 빛으로 시작하는 신혼

집 제외해도 평균 6298만원 필요

“결혼, 하는 것이 좋다” 24.8% 뿐

‘사랑 없는 결혼’ ‘돈 없는 결혼’.. 둘 다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의 난제이다.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
다’,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20대 응답률은 지난 2020년
29.9%에서 2022년 24.8%로 떨어졌다.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답변은 2년 새 5.2%포인트(57.5%→
62.7%)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혼인 건수(통계청 인
구동향조사)는 1만1326건으로, 10년 전(1만8815건)보
다 40%(-7489건) 줄었다.

‘결혼이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퍼지는 건 터무니없이
비싼 결혼 비용이 한몫한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
다. 이 같은 경향은 20대와 30대가 중장년층보다 강했
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 1~5년 차 1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해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를
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이 6298
만원에 달했다. 집 마련을 포함하면 결혼 비용은 3억474
만원으로 뿔다.

신혼부부 통계(통계청)를 보면 혼인신고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의 금융권 대출잔액 증감률은 지난

2022년 기준 광주 1억4998만원·전남 1억1917만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해마다 늘어 최고를 찍었다.
대출잔액 증감률은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대
출잔액의 값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말한다.

신혼부부가 새 출발부터 역대 빛을 쬐 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부담 때문이다. 2022년 기준 광주 신혼부부
1만4188쌍 가운데 주택자산 가액이 3억원이 넘는 부부는
2597쌍으로, 전체의 18%가 넘었다.

지난해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30대
에 ‘내 집 마련 방법’을 묻자 1순위 방법으로 부모·형제의
보조(3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저축(35.9%)과 융자
(24.7%), 증여·상속(0.8%)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76.9%
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
함) 9.9%, 전원주택 8.1%, 오피스텔 1.7%, 상가주택
1.6%,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1.5% 등 순이었다.

고향에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볼
잡기 위해 전남도는 ‘만원주택’을 대안으로 내걸었다.

앞서 화순군은 ‘만원주택’, 나주시는 ‘0원 주택’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유입 효과를 봤다.

전남도는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10년
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지난달
고흥·보성·진도·신안군 4곳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도비와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
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다.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은 군비
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 총 210호가 건립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